

캄보디아 시엠립에서의 편지

유대연 하천지(시온) 선교사
(23.09.23)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벌써 저희가 캄보디아에 도착한지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을텐데 이 곳은 더 더워지고 있어서 '아 진짜 내가 선교를 나오긴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잘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불편함 없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현재 머물고 있는 SONG OF HOPE 에서의 역할과 또 언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언어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에는 저와 아내가 맡은 각자의 역할(도서관, 세종학당 등)을 감당하며 사역을 배우고 있고 또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늘려가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 / 세종문화아카데미(K-FOOD)

얼마 전에는 아들 시온이의 첫 돌 잔치가 있었습니다.

SONG OF HOPE 스텝들과 함께 1년 동안 잘 자란 시온이를 대견해하며, 또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삶도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ong of Hope 1층 카페에서 시온이 첫 돌 잔치

기도해주세요

1.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가정되도록.
2. 크메르 언어에 더 매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3.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장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도록.
4.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평안하도록.